

2011.02.28 미래정책연구실

□ 국제 식량가격, 올 하반기 아락 전망 대두

1. The Wall Street Journal (2011.02.22) 주요 내용

- FAO와 세계은행 등이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위원회, USDA,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올 하반기부터 식량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발표함.
- 러시아, 브라질, 호주와 같은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곡물 재배면적 확대에 의한 생산량 증가로 국제 식량가격의 급등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. 단 기상조건이 호의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음.

※ 국제곡물위원회(IGC: International Grains Council): 국제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조직된 기구로 곡물무역의 국제 협력 촉진과 유통질서 확립, 곡물무역의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. 또한 수요공급에 의한 곡물시장의 상황과 무역 및 수급상황 체크가 주요 업무임.

※ IHS 글로벌 인사이트(IHS Global Insight): 미국의 예측정보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·전망을 통해 정치, 경제, 법률, 세금, 안보요인을 아우르는 정보를 서비스함. 또한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국가정보 리포트, 지역별, 국가별 경제정보 서비스, 소버린 리스크 등을 제공함.

<국제곡물위원회>

- 국제곡물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2011년 국제 밀 재배면적은 3.1% 증가한 2억 2,400만 ha로 전망되며, 생산량은 4% 증가한 6억 7,000만 톤으로 예상됨.
- 지난해 심각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러시아는 2011년 밀 재배면적이 1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- 브라질은 사상 최고의 대두 수확을 시작했고,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까지 가뭄이 이어졌지만 최근에 비가 내려 대두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- 방글라데시, 필리핀,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쌀 수요 수입국이었지만, 자국의 자체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량을 감소시킬 예정임.

<USDA>

- 지난 주 발표된 USDA의 장기 전망치에 따르면, 급등하는 식량가격으로 인해 2011년 미국의 곡물재배면적이 4백만ha 증가한 1억 300만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 또한 옥수수과 콩의 재배면적도 각각 4.3%, 0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<IHS 글로벌 인사이트>

-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던 일부 나라에서 곡물생산량이 회복되어 국제 식량가격이 올 하반기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

<다른 시각>

-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임.
- 일부 국가에서는 재배면적이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였고, 국제유가 상승과 임금인상 등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쳐 가격하락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세계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간과 관개시설, 도정과 저장 시설 등 수년의 시간과 자본투자가 필요함. 그러나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휴경지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임.

□ 세계 GMO 재배면적 증가

1. Financial Times (2011.02.22) 주요 내용

-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(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

of Agri-biotech Application: ISAAA)의 분석에 의하면, 2010년도 전 세계 **GMO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0% 증가**한 1억 4,800만 ha 수준임.

- 2010년에 29개국 1,540만 명의 농부들이 GMO를 생산하였고, 오는 2015년까지 GMO 생산국에 12개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함.

※ ISAAA(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-biotech Application):
비영리 국제기구로 다양한 GM의 기술을 공유함. 특히 개발도상국에 GM에 대한 지식공유사업과 생물공학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함.

- 전 세계 GMO 재배량의 절반은 **미국**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GMO 재배면적은 6,680만 ha, 브라질 2,540만 ha, 아르헨티나 2,290만 ha 수준임.
 - **브라질**의 GMO 재배면적이 2009년보다 19%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.
- ISAAA의 회장인 클리브 제임스(Clive James)는 “2010년에 **개발도상국의 GMO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8% 증가**하여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선진국의 재배면적을 넘어설 것이다”고 주장함.
- ISAAA에 따르면, 빠르면 2012년에는 가뭄에 강한 옥수수를 도입할 것이며, 2013년에는 GM 쌀을 상용화할 계획임.
 - 이밖에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의 원인이었던 잎마름병에 내성을 가진 감자와 사탕수수, 바나나, 가지, 토마토, 브로콜리, 양배추, 고구마, 카사바, 땅콩 등은 2015년에 상용화될 예정임.

(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)